

효성, 모바일 오피스 가동

효성그룹은 11월10일 모바일 오피스 엠호프(M-HOPE)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발표했다.

엠호프는 효성그룹 계열사가 모두 쓸 수 있는 그룹웨어로 비즈니스 솔루션 전문 계열사인 효성ITX와 공동 개발했다.

이에 따라 효성그룹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이동중에도 이메일, 게시판, 임직원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전자결재도 할 수 있게 됐다.

효성 관계자는 “엠호프의 모든 자료는 휘발성으로 처리돼 스마트폰에 업무용 자료가 남지 않고, 사용자의 아이디(ID)와 단말기 고유번호가 일치해야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모바일 오피스의 약점이었던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1/11>